마지막 태양까지 떨궈야 했다

(신명기17:1~20)

1.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4. 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되
6.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 17장 본문을 근거로 <마지막 태양까지 떨궈야 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마지막 태양까지 떨궈야 했다'

전설에 따르면 중국 고대에 요(堯) 임금이 있었습니다. 요 임금 시절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 태양이 열 개나 뜬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열 개의 태양은 본래 하늘 임금의 아들들인데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떠오르게 되어 있었는데, 이 열 개의 태양들이 싫증이 났는지 순서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떠올라 버렸습니다. 당연히 강물이 마르고 초목이 타죽고 사람들은 갈증과 폭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요 임금이 하늘 임금에게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자, 하늘 임금이 받아들여서 해결사를 부르게 되는데 바로 최고의 활잡이인 예(羿)였습니다. 하늘 임금의 부름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온 예가 태양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화살을 쏘기 시작하자, 그 화살에 맞은 태양들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상한 것은 땅에 떨어진 태양들이 전부 삼족오(三足烏)였습니다. 삼족오는 발이 셋 달린 태양 속에 산다는 까마귀로, 사람들이 태양의 흑점을 보며 만든 신화 속의 가상의 생물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하나

씩 떨어지는데 이 예가 열 개의 태양을 다 맞출 기세입니다. 그러자 태양이 모두 사라질 것을 걱정한 요 임금이 꾀를 내어서 예의 화살 통에서 화살 하나를 몰래 빼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태양은 하나가 남아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마터면 태양이 없는 암흑 세상에 빠질 뻔 했다고 안도의 숨을 쉬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 마지막 열 번째 태양까지 다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태양은 없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태양의 실체는 삼족오였기 때문입니다.

삼족오가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하늘을 나는 새들은 두 다리가 있지만 가늘고 짧고 빈약합니다. 다리보다 몇 배나 더 큰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앉긴 하지만 하늘에 속한 조류입니다. 거꾸로 삼족오는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생물이 아닙니다. 즉 땅에 속한 것이 태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땅에 속한 것으로 태양을 삼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빛의 발광체라는 태양의 실체가 새카만 까마귀입니다. 빛 덩어리가 아니라 암흑의 덩어리인데 그것을 우리의 빛으로 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이고 전설이나 신화가 인생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도대체 태양이 뭘까요?
여러분! '오 솔레미오(나의 태양)!'라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의 가사는 나폴리의 발코니가 있는 집에서 창문을 열고 빨래를 너는 아가씨를 보게 됩니다. 나폴리의 아름다운 태양빛이 내려쬐는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아가씨를 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 폭풍우 지나고 나니 네 빛이 더 찬란하구나 /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오는데 / 하늘의 밝은 해가 비치니 / 너의 눈동자가 태양빛보다 더 아름답구나"라고 노래를 합니다. 나폴리의 따사로운 해를 찬양하기 시작해서 절절한 사랑의 노래로 바뀝니다. 하늘에 해가 떠 있지만 내 마음의 해는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네가 나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태양보다도 더 아름다운 너의 눈동자 / 오 나의 태양이여 / 그 빛나는 너의 눈동자 / 너의 창에 빛은 비치고 / 너는 빨래를 하면서 / 높다랗게 노래를 부른다. / 그리고 꼭 짜서 손으로 펴고 / 다시 노래를 부른다. /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 그러나 그 태양보다 더 아름다운 너의 눈동자 / 밤이 와서 태양이 질 때 / 너의 창밑에 와서 나는 쓸쓸이 멈추어 선다."
한마디로 네가 없는 세상은 쓸쓸함만 남는다는 것인데 이 곡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대중가요와 오페라의 융합이라느니, 제2의 이태리 국가라느니, 전 세계의 영원한 애창곡이라느니, 콘서트와 음반 양쪽 모두를 통해 영원한 표준 곡으로 자리를 잡았다느니 난리인데 이 곡이 이렇게 되는데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태리 나폴리 출신의 테너 가수 엔리코 카루소(Enrico Caruso)입니다. 그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 노래를 부른 뒤에, 이 노래는 전 세계의 영원한 애창곡으로 자리 잡았는데 엔리코 카루소가 그저 노래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노래가 불려진 1900년 때나 지금이나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솔레미오(오 나의 태양)'이라는 구호를 날마다 24시간 외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지는 한이 있어도 내 마음 속의 태양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아가씨를 보고 하늘에 떠있는 태양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의 태양을 외치며 부르면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이토록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씨든 승진이든 결혼이든 건강이든 태양빛보다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사전에서도 태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태양계의 중심에 있으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라는 천문학적 의미가 있고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설의 통찰력을 여기에 붙여봅니다. 소중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태양인데 그 실체가 까마귀라는 것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뜨면 천지가 분별이 됩니다. 나무는 나무로 보이고 자동차는 자동차로 집은 집으로 산은 산으로 보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그것이 태양이 되어서 밝히 보이게 됩니다. '오솔레미오' 노래를 부르면서 아가씨를 사랑하는 청년이 풀밭을 볼 때에는 '내가 그 아가씨와 풀밭으로 소풍을 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고, 시장을 걸어가면서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을 내 애인이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하는데 한 마디로 선악의 분별과 판단이 생깁니다. 태양이 뜨면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태양이 있게 되면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분별이 되는데, 나의 태양에게 유리하면 좋은 것이고, 나의 태양에게 불리하면 안 좋은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것이 밝음이기에 태양입니다.
이 삼족오의 전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속한 것들 중에서 태양을 삼으면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까마귀'라는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희망(빛)'이라고 생각하지만 암흑이고 '암흑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암흑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암흑이 가르쳐주는 대로 분별하며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떨어졌는데 발이 세 개 달린 까마귀로 변했다는 것은, 땅에 속한 어떤 것이 나의 태양이 될 때에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이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절에 하나님께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항상 제사를 드리는 자와 동일시됩니다. '제물에 흠과 악질이 있을 때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은 '선민들 중에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흠과 결점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7절에 "이들을 가증하게 여기셔서

선민의 그룹 안에서 두고 보실 수가 없으므로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특이한 점은 다른 신들을 섬김과 일월성신을 연결한 점입니다. '다른 신들과 일월성신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다른 신들의 성격을 일월성신을 통해서 규정하십니다. '다른 신'은 알라나 힌두교의 신이나 일본의 600백만 신 등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루터가 말한 대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온 것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른 신을 오늘 '일월성신'이라는 빛의 발광체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왜 희망이 됩니까? 내 마음속에 소중한 것의 이름을 들여놓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언젠가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데 일월성신입니다. 깜깜한 가운데 태양이 뜨게 되면 그 태양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분별이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돈을 태양으로 집어넣었다면 돈을 벌기에 유리한 것은 좋은 것이고, 불리한 것은 나쁜 것이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자녀를 집어넣었다면 자녀에게 유리한 것은 좋은 것이고, 불리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분별이 생기는데, 일월성신에서 달과 별이 뜻하는 것은 모든 것이 새카맣게 절망적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여놓은 소중한 것 한 가지만 잘되면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이 특이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일월성신'이라는 빛으로 규정해 놓으시고 8~9절에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라고 하십니다. 즉 너희들이 서로 갈등이 생겨서 잘잘못을 판결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선택한 중앙 성소로 가라는 것이고, 그곳에서만 올바른 분별과 판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족오 까마귀를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올바른 분별과 판단이 설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도록 선택된 장소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의 태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태양이 되는 어떠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소원의 끝은 까마귀라는 암흑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돈 벌기를 바라고, 자녀를 마음속의 태양으로 삼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소원의 끝이 암흑이고 까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은 삼족오가 뜻하는바 땅에 속한 것으로 하늘을 날고 싶어 할 때에 모든 소원과 희망과 판단은 다 암흑으로 처박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 임금이 예의 화살 통에서 화살을 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화살을 하나 빼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에 땅에 속한 것을 태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월성신은 분별을 가능하게 해주고 희망을 주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까마귀처럼 새카맣게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모셔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흠 있고 악질 있는 것은 가증하니 바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태양일 때는 돈 버는 일의 유, 불리를 따지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태양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나니 하나님께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일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것이 됩니다. 돈이 벌리는 것이 선이고 안 벌리면 악이었고, 돈이 안 벌리면 실패고 벌리면 성공이었지만 이제는 돈이 안 벌리더라도 하나님께 좋은 것이면 선한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을 태양으로 삼더라도 결국은 암흑으로 끝나고 새카맣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간 동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중장년 일 때 노년에 열 개의 태양을 바꿔가며 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 개의 태양 전체를 다 떨어뜨려야 합니다. 활잡이 예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싶을 만큼 좋아 보이는 모든 태양을 십자가 화살로 쏴서 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것입니다. 열 개의 태양을 다 떨어뜨리고 나면 주님 따라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태양으로 삼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밝음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주제를 왕으로 이어 갑니다.

왕은 군주이고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 주(主)자가 왕(王)자 위에 꼭지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한자의 왕(王)이라는 글자와는 상관이 없고, 등잔을 올려놓는 등잔대로 등잔대 위에 있는 심지에 불이 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판단하는 자, 분별하는 자가 임금이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율법서를 옆에 끼고 있습니다. '율법서'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판단과 분별을 해야 하는 임금조차도 하나님을 마음속의 태양으로 삼음으로서 하나님께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안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면 애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애인에게 나쁜 것이 무엇이고, 사업체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유리하고 불리한 것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암흑으로 치닫게 되고 태양인 사업체와 애인이 고꾸라져서 땅에 떨어져 까마귀로 변할 때가 오게 되므로 열 개의 태양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갈 만큼 소중한 일들이 눈에 보이고 내 앞에 닥치게 됩니다. '소중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므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에도 마음을 뺏기면 그 나쁜 일도 희망이 됩니다. 그 일이 해결되어야 기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

다.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해결이 돼야 내가 기쁠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 하루에도 이러한 일월성신들이 열 개 이상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새카만 가운데 달만 보이니 그것이 희망입니다. 새카만 가운데 하늘에 별이 보이면 그게 희망입니다. 태양이 뜨면 모든 게 보이고 모든 게 분별이 됩니다. 열 개의 태양, 스무 개의 태양, 백 개의 태양이라도 십자가 화살로 다 떨어뜨려야 합니다. 삼족오로 대표되는 땅에 속한 그 어떤 태양과 그 어떤 달과 그 어떤 별도 우리 마음에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달과 별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오솔레미오'라고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를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도 여호와의 판단인 율법을 끼고 사는데 항차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태양 삼아서, 그곳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판단과 판결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새카만 삼족오의 희망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족오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진의가 중국의 전설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이 땅의 것이 있다면 무조건 삼족오인 줄로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야 내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삼족오에 속지 마시고 진정한 태양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수많은 태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매 순간마다 다 쏴서 떨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지막 태양 하나까지도 떨어뜨렸어야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공간에서는 내 마음속에 열 개, 스무 개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태양들이 내게 재앙을 가져옴으로 주님의 십자가 화살로 쏴서 떨어뜨리되, 마지막 한 태양까지도 남기지 않고 떨어뜨려서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태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